

# 건강한 구강 유지를 위한 조언

생후에서 1살까지

- 깨끗하고 촉촉한 가제수건으로 매일매일 아기의 잇몸을 닦아줍니다. 이를 닦을 때는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하고, 생후 1년까지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아기의 입안을 닦을 때는 아기의 얼굴이 앞으로 오도록 하여 무릎에 눕힌 후 엄마의 두 손이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.
- 생후 6개월가량 되면 젖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이때 차갑고 단단하며 안전한 물리개를 아기에게 물리면 젖니가 나올 때의 아픔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.
- 아기를 재울 때 물 외에는 유동식이나 젖병, 주스, 기타 음료수를 물려 재우지 않습니다.
- 생후 7개월즈음부터는 주스, 유동식, 물을 먹일 때 유동식 컵을 사용합니다.
- 아기의 치아를 자주 검사합니다. 치아에 하얀 반점이 있는지 아니면 잇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.
-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수돗물에 불소처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불소에 관해 문의합니다.



Medical Assistance Administration